■ 겨레말이 만난 사람

「남북한 수산용어 비교 사전」

수산분야의 남북 이질감 해소와 상생·공영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황진회 북극해 · 남북협력연구실장/부연구위원

우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생소한 독자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해주세요.

- 지난 1997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법이 제정되면서 그 동안 바다에 관한 연구를 각각 하고 있던 5개 연구기관[1]이 통합 발족되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바다에 관한 정책적 · 사회과학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주요 연구분야는 해양정책연구, 해양물류항만연구, 수산정책연구, 바다관련 미래전략연구 등이 있습니다. 바다에 관한 연구를 하기에 요즘 얼음이 녹고 있는 북극의 바다, 즉 북극해에 대해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고, 북한과의 해양수산협력도 중요한 연구분야입니다.

1) 5개 연구기관(기능)은 해운산업연구원(1984년 설립),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정책연구부(1983년 설립), 농촌경제연구소 수산연구부문(1992년 설립),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1995년 설립), 국립수산진흥원 수산경제연구실(1991 설립) 등임.



"북과의 수산물 교류는 북한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국내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해양정책연구, 물류정책연구 등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신데요. 그 동안 진행 해온 남북협력 연구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연구원에서는 북한과의 해양협력에 대해 다양한 연구를 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2004년 남북해운합의서 체결을 위한 정책개발에 많은 지원을 했으며, 2007년에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도 우리 연구원에서 기본구상을 만드는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남북농수산협력분과 위원회에서 논의한 수산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도 다양한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남과 북은 그동안 해상운송도 이루어지고, 수산물 교류를 진행해왔는데요. 북과의 선박운송과 수산 교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 먼저 선박운항은 남북한 해운합의서에 따라 남과 북이 선박을 투입하여 운항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중단되었지만, 남북간 선박운항은 민간기업에서 선박을 투입하여 남북한 교역물자를 수송했습니다.
- 수산물 교류는 북한에서 생산되는 바지락, 대게 등의 수산물을 남한 기업이 반입하여 국내 남한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오징어를 북한에서는 낙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반대로 북한에서 알고 있는 낙지는 남쪽에서는 오징어라고 합니다."



수산물 관련 용어가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 남북한이 분단된지도 벌써 60년이 지나면서 제도 뿐만 아니라 문화와 관습도 많이 달라지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해양수산용어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징어를 북한에서는 낙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반대로 북한에서는 알고 있는 낙지는 남쪽에서는 오징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명란은 알밥으로, 어부는 어로공, 성어(어미고기)는 엄지고기, 개간지는 일군땅 등으로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북의 사투리가 현지 여건과 제도 등에 따라 고착화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남북한 수산협력에 대비한 <남북한 수산용어 비교사전>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북한 수산용어 비교사전>을 편찬하려는 취지와 진행정도, 계획 등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 남북한간에는 언어 및 용어로 차이로 인한 문화적 이질감 및 대화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수산분야에서도 유사한 상황입니다. 현재 남북간에는 일반적인 용어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수산분야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어의 차이로 인해 대화 및 협상에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그 동안 남북간에는 국어(나라말) 및 전문용어 상이로 인한 여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및 분야별 전문용어 사전 발간이 다양하게 추진되었습니다. 과학기술, 농업, 철도 등의 분야에서는 남북용어비교사전이 발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 분야는 이런 결과물이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 「남북한 수산용어 비교 사전」 발간은 이와 같이 수산분야에서 남북의 이질감 해소와 상생 · 공영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과의 접촉이 어렵게 되면서 남북 수산용어 비교사전 발간 작업이 늦어지고 있는데, 향후 남북관계가 현재보다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자료수집과 표제어 선정 작업등을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3-42 지방재정회관 12층 | 대표전화 02-3275-0815 | 전송 02-3275-3715

Copyright©2010 GYEOREMAL All Rights Reserved.

《겨레말큰사전》을 기다리는 마음

_ 김수업 / 전 국어심의회 위원장



나는 철들고 반세기 넘도록 살아오는 동안 우리나라가 북녘과 손잡고 《겨레말큰사전》을 만드는 일이 가장 잘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것이야말로 두 동강난 겨레를 다시 잇는 일의 바탕이요 알짜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는 갈라진 겨레를 다시 이으려는 바람을 안고 갖가지 일들을 벌였다. 정치가들이 만나 공동성명도 내고, 흩어진 가족들이 만나 눈물바다를 이루며 끌어안기도 하고, 뭍으로 바다로 하늘로 적지 않은 사람과 물자가 오고 가고, 마침내 나라책임자가 두 차례나 만나 손을 부여잡고 뜻을 모으기도 했다. 그런 일 어느 하나 값지지 않은 것이 없지만 나는 그 어느 것보다 《겨레말큰사전》 만드는 노릇이 가장 값지다고 생각한다. 정치, 경제, 군사, 외교 같은 여러 계산을 뛰어넘었을 뿐 아니라 겨레가 반드시 하나로 다시 어우러져야 한다는 뜻을 가장 또렷하게 담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동강난 겨레를 다시 잇는 일', 이것은 누가 뭐래도 오늘날 온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는 칠천만 우리 겨레의 가장 뜨거운 바람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지난 반세기에 살다가 돌아가신 선인들이나 앞으로 바람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살아갈 후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뜨거운 바람일 것이다. 우리 겨레는 우리가 갈라지고 싶어서 갈라진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다시 어우러져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를 갈라놓은 것은 일본제국주의자와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패권주의자들이었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일본제국이 우리를 침략하여 식민지로 삼지 않았다면, 일본제국을 무너뜨린 미국과 소련이 일본 열도를 잘라 나눌지언정 우리 땅을 나누어 차지하려는 꿈은 꾸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제 일본제국도 소련도 사라지고 미국 홀로 남았는데 어째서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지 못하는가? 남녘이나 북녘이나 우리가 못난 탓일 뿐이다. 그래도 《겨레말큰사전》을 함께 손잡고 만드니 못난 우리의 부끄러움이 조금은 가벼워진다.

나는 언론에서 남북이 함께 《겨레말큰사전》을 만들자고 '사전편찬의향서'를 주고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며 놀랐다. 남북의 우리말사전에 여태 오르지 못한 낱말을 모두 찾아 올리기로 했다기에 더욱 반갑고 기뻤다. 사실 나는 평생 우리말과 말꽃 가르치는 공부를 하면서 우리말사전을 펼칠 적마다 늘 속상했다. 속상한 까닭의 하나가 바로 '살아 있는 사람들이 날로 쓰는 입말'을 찾아 싣지는 않고, 글자로 적힌 것은 낱말도 아닌 한자까지 샅샅이 긁어모아 실어 놓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사)전국국어교사모임 선생님들과 의논해 나라 곳곳에 있는 국어 선생님이 저마다 제 고장에서 사전에 오르지 못한 낱말을 찾아 모아 새로운 우리말사전을 만들어보자고 벼르고 있었다. 그런데 언론에서 이런 소식을 만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그때 남쪽 편찬위원장이셨던 홍윤표 교수님께 전화를 걸어서 곧장 남녘에서는 사전에 오르지 못한 낱말을 어떻게 찾으려 하느냐고 물어보았다. 속셈으로는 전국국어교사모임 선생님들의 힘을 빌리면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대답은 시도별로 사투리 전공 학자를 골라서 책임을 지워 찾는 일을 이미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굳이 어려운 일을 벌일 것 없이 《겨레말큰사전》을 뜻한 그대로 훌륭하게 만들기만을 기도하며 기다리면 되겠다고 생각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소문에 북녘은 전체주의 나라라 곧장 나라를 샅샅이 뒤져 사전에 오르지 못한 낱말을 있는 대로 찾아 놓고 지금 사전에 올릴 낱말을 가리는 일에 힘쓴다고 들었다. 그런데 남녘은 사정이 어떤지 모르겠다. 큰 시와 도를 하나씩 책임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과 시간을 바쳐서 살아 있는 입말을 알뜰하게 찾아냈는지 궁금하다. 일테면 내가 어릴 적에 우리 고향 진주에서는 눈만 뜨면 다음과 같은 낱말을 주고받으며 살았으나 아직까지 어떤 우리말사전에도 오르지 못했다. "사람이라고 모두 같은 사람인 줄 아나? 사람도 다 뜨레가 있다." "한테다 뒤죽박죽 모으지 말고 굵은 것하고 자잔한 것을 좀 뜨레를 지어서 모아라." 하는 이름씨 '뜨레', "여자들 소드래에 한번 오르면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다." "어쩌자고 그런 소드래를 만들어서 난리를 피우나 그래?" 하는 이름씨 '소드래', "성태는 처갓집 찜으로 이번에 쭝은 자리에 취직을 했다며?" "요새 같은 세상에 찜없는 사람 어디 서러워서 살겠나?" 하는 이름씨 '찜', "대구로 이사를 간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에나가?" "영필이 그 사람 육자배기 소리 에나 잘 하데!" 하는 이름씨와 어찌씨로 두루 쓰는 '에나'를 비롯하여, "그렇게 구불어지고도 뼈가 멀쩡하다니 하늘이 도왔다!" 하는 움직씨 '구불어지다', "잠가 놓은 자물통을 우찌 께루고 들어갔노?" 하는 움직씨 '께루다', "보릿단을 여따 이리 끌빡아 버리모 우짜노?" 하는 움직씨 '끌빡다', "조심해라 널쭈모 깨진다." 하는 움직씨 '널쭈다', "떨군 가오리 덕석 가오리 아이가!" 하는 움직씨 '떨구다'(국어사전에도 '떨구다'가 실렸지만 그것과는 사뭇 다른 낱말이다.)에다, '꿀찜하다', '느럼느럼하다', '뭇되다', '쑥쑥하다', '야삼하다', '옴부랍다', '칼컬하다', '허축하다' 같은 그림씨 낱말이 모두 국어사전에 오르지 못한 것들이다. 내가 아는 우리 고향 말만도 이러니 온 나라를 뒤져 찾으면 얼마나 많은 낱말이 있을까? 이들 낱말이 모두 《겨레말큰사전》에 올라 떳떳이 살아날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렌다.

이처럼 가슴 설레며 기다리는 《겨레말큰사전》이기에 내 마음에는 온갖 바람이 똬리를 틀고 있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만 말하고자 한다. **우선, 토박이말의 속뜻을 제대로 가려서 쉽게 풀이해달라는 바람이다.** 알다시피 오늘날 우리는 토박이말을 뒤죽박죽 쓰고 있다. 마땅히 국어사전이 올바로 가르쳐야 하지만 속뜻을 제대로 가려서 풀이해주는 사전이 없다. 보기 하나만 들어보자. 《겨레말큰사전》 편찬위원회가 기대고 있는 남녘의 《표준국어대 사전》에서 '내'를 찾아보면 "시내보다는 크지만 강보다는 작은 물줄기≒개천" 이렇고, '시내'를 찾아보면 "골짜기나 평지에서 흐르는 자그마한 내≒소계(小溪)" 이렇고, '개천'을 찾아보면 "개골창 물이 흘러 나가도록 길게 판 내≒굴강(掘江)" 이렇고, '실개천'을 찾아보면 "폭이 매우 좁고 작은 개천≒소류(小流)" 이렇고, '개골창'을 찾아보면 "수채 물이 흐르는 작은 도랑≒구거(溝渠)" 이렇고, '도랑'을 찾아보면 "매우 좁고 작은 개울≒물도랑 · 물돌 · 수거(水渠)" 이렇고, '개울'을 찾아보면 "골짜기나 들에 흐르는 작은 물줄기" 이렇다. 내, 시내, 개천, 실개천, 개골창, 도랑, 개울이 그야말로 뒤죽박죽 얽혀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게다가 우리 어릴 적까지도 쓰던 '가람'은 아예 싣지도 않고, 아무 쓸모도 없는 한자말을 여럿이나 끌어다 놓았다. 주제넘지만 한 마디 하면, 바다로 들어가는 크고 많은 물은 '가람'이고, 가람으로 들어가는 물은 '내'고, 내에서도 가는 내는 '시내'고, 내로 들어가는 물은 '개천'이고, 개천에서도 가는 개천은 '실개천'이고, 개천으로 들어가는 물은 '개울'이고('개골창'은 개울의 사투리다), 개울로 들어가는 물은 '도랑'이다. 이들 가운데 개울과 도랑은 사람이 손을 써서 늘 돌보는 것이라 그밖에 것들과 다르다. 이처럼 아름다운 토박이말은 모두 '강'이라는 한자말에 짓밟혀 죽거나 죽어가고 있다. **또 하나, 토박이말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 하지 말라는 바람이다.** 우리는 오랜 왕조 시대에 높은 사람들이 한문과 한자말을 쓰면서 잘(?) 살았고, 왕조가 무너지자 지식인들이 서양말을 쓰면서 잘(?) 살아서 '소젖' 위에 '우유' 있고 '우유' 위에 '밀크'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말사전이 마땅히 바로잡아야 할 우리네 부끄러운 역사의 찌꺼기다. 아름다운 우리 토박이말 '가시버시'의 깊은 속살을 알지도 못하면서 《표준국어대사전》은 "부부를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 풀이해놓았다. 제발 《겨레말 큰사전》은 우리말의 알짜인 토박이말을 함부로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 하지 말기 바란다.

| 김수업 |

경북대 사범대학과 대학원에서 문학사와 문학석사·박사를 학위 받고, 경상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대구가톨릭대 총장과 모국어교육학회장, 배달말학회장, 우리말교육현장학회장, 국어심의회 위원장을 지냈다. 저서로는 《배달말꽃, 갈래와 속살》, 《국어교육의 바탕과 속살》, 《배달말 가르치기》, 《말꽃 타령》, 《우리말은 서럽다》 같은 책을 펴냈다.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3-42 지방재정회관 12층 | 대표전화 02-3275-0815 | 전송 02-3275-3715

Copyright©2010 GYEOREMAL All Rights Reserved.

우리말의 풍경

_ 배미주 / 동화작가

올여름에 영월로 피서를 갔습니다.

동강축제 구경도 겸해서요. 볼거리 할거리가 많은데 '삼굿체험'이란 게 있었어요.

"삼굿? 무슨 굿판이라도 벌어지나 보다."

한바탕 굿구경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삼껍질을 벗기려면 땅에 구덩이를 파고 삼대를 쪄야 합니다. 거기 옥수수며 감자를 껴묻어 구워먹는 오랜 고장풍습을 재현하는 놀이였던 거죠.

그러니까 '굿'은 무당이 너울너울 춤추는 그 굿이 아니라 구덩이를 뜻하는 '굿'이었어요. 사전을 찾아보니 '굿뱀'도 있고 '굿일'도 있더군요. 흙구덩이에 모여사는 뱀은 굿뱀이고 무덤 파는 일은 굿일이고요.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삼굿에서 구운 옥수수며 감자며 달걀을 얻어 왔어요. 먹어본 아이들은 '옥수수는 무르고 맛나고, 달걀 맛은 이상하다'고 했어요. 달걀은 훈제처럼 연기가 스며 평소 먹던 깔끔한 맛이 아니었던 거지요.

구멍 또는 구덩이를 뜻하는 굿이란 말이 이제 널리 쓰이지 않듯이 삼굿도 우리네 도시생활에선 축제에서나 볼 수 있는 귀한 구경거리로만 남았어요. 말과 더불어 우리 삶의 익숙한 한 풍경도 사라져가는 거죠. 하지만 저희 가족은 말랑하던 옥수수 맛과 함께 비 머금은 삼굿에서 오르던 연기의 냄새를 기억 속에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전 글을 쓸 때면 늘 사전을 옆에 둡니다. 하지만 사전에서 살려 쓰는 말은 드물어요.'말'을 살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는 까닭이죠. 제 두 번째 책은 과학소설이라 상상력이 많이 필요했어요. 새로운 말을 짓는 일도 많이 필요했죠. 말을 하나 새롭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 소설에는 역진화를 통해 탄생된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의 이름을 짓기 위해 저는 무진 애를 썼어요. 귀에 쏙 박히면서도 신선하고 의미도 잘 나타내주는 그런 이름을 짓고 싶었지요. 두꺼운 사전이며 생태도감이며 이미 사라진 동물에 대한 백과며 온갖 자료를 뒤지면서 골머리를 싸맸지만 결국 제 짐승의 이름은 '곰쥐'가 되었어요. 멋진 어감보다 쉬운 의미전달 쪽에 손을 들어준 거죠. 그렇지 않아도 낯선 말들이 많이 등장하는 책이라 낱말 하나라도 쉽고 익숙하게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하는데 무게를 둘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저로서는 우리말의 이름씨들을 처음 지었을 그 옛날의 누군가들에게 감탄하고 또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파리, 나비, 잠자리.

'플라이, 버터플라이, 드래곤플라이'보다 정성스럽고, 부르기 쉽고 그 이름씨의 주인에도 잘 어우러지지 않나요? 천의무봉, 이렇게 말 짓는 일이 얼마나 홀륭한지 시도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거예요.

하긴 아이들은 혀가 서투른 탓에 저도 모르게 말 짓는 이가 되지요. 제 딸은 어렸을 때 '크레파스'를 '크바추추'라고 불렀어요. 크바추추. 그 귀여운 소리가 귓가에 다시 들리는 듯합니다.

우리말은 발음하기 쉬워요. 한자어를 제하면 대체로 각진 말, 치받는 말이 드물잖아요. 심지어는 외래어도 우리 땅에서 오래 묵으면 계곡을 벗어나 물가에 누운 자갈처럼 둥글어지지요.

우리말은 소박하고 거드름이 없고 명랑합니다. 그리고 감각에 충실하고요.

'도마뱀'은 도망갈 때 천적의 눈을 호리느라 제몸의 꼬리토막을 뚝 떼내주고 '옛다, 이거나 먹어라.'하고 허둥지둥 달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마뱀이지요. 토막뱀이 아니라 둥글려서 도마뱀이니 더 정겹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잘 쓰이고 있는 우리말도 있지만 사전에서나 찾을 수 있게 된 말도 많아졌습니다.

'바람꽃'을 아세요? 큰 바람이 일어나려 할 때 먼 산에 끼는 뽀얀 기운을 바람꽃이라 부른답니다. 사실.....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먼 산이 보이지도 않고 오늘의 날씨는 텔레비전에서 알면 되니까요.

'도사리'도 있어요. '밭에서 흙속의 뿌리로 겨울을 나고 이른 봄에 돋아난 풀을 뜻하는 말이지요. 우리 옛 님들은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것에도 이름을 주셨으니 산책로를 걸으면서 만나는 풀나무들의 이름을 거의 모르는 제가 부끄럽습니다..

말글은 한 존재를 다른 존재와 구분하게 해주는 것이기도 하고 날실과 씨실을 엮어 베를 짜듯 우리가 모여 이룬 삶의 풍경이기도 합니다.

먼훗날 우리말의 풍경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맥도날드 가게의 붙박이 의자처럼 여기나 저기나 비슷비슷하고 팍팍한 삶의 결들이 우리말을 더 거칠게하고 어둡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배미주 |

2008년 동화집 <웅녀의 시간여행>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여, 2009년 <싱커>로 창비 청소년문학상에 당선되었다. 그밖에 공저 <천둥치던 날>이 있다.

Copyright©2010 GYEOREMAL All Rights Reserved.



겨레말 큰사전 누리판

제29호

■ 겨 레 말 소 식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회에서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조언을 기다립니다.

오는 10월 발간될 소식지에 들어갈 댓글을 직접 달아보세요.

남북이 함께 만드는 《겨레말큰사전》 편찬 진행률이 어느덧 50%를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업회는 힘차게 절반을 걸어온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보내주시는 응원과 의견 한 줄 한 줄은 《겨레말큰사전》 편찬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겨레말큰사전》에 던지는 응원과 조언 한 줄!" 을 전자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오는 10월에 발간될 소식지 특집란에 실을 예정이며, 발간된 소식지는 댁으로 발송해드립니다.

겨레말큰사전에 바라는 글(1~3줄 정도)과 성함, 직업, 나이, 사진(희망자만)을 함께 적어 전자우편(gyeoremal@hanmail.net)으로 9월 26일(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댓글 예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전이면 좋겠어요! (김사전/34세, 회사원)

댓글 보내기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3-42 지방재정회관 12층 | 대표전화 02-3275-0815 | 전송 02-3275-3715
Copyright©2010 GYEOREMAL All Rights Reserved.

겨레말 큰사전 누리판 제29호

■ 겨 레 말 소 식

동아방송예술대학 방송국 한글날 특집 다큐멘터리 촬영

편찬사업회에서는 지난달 23일 동아방송예술대학 방송국(DBS)에서 제작중인 **한글날 특집 다큐멘터리 "말모이"**촬영이 진행되었다.
이번 촬영은 국어사전 편찬의 역사에 관한 다큐멘터리 제작으로, 한용운 편찬실장의 인터뷰를 비롯하여 《겨레말큰사전》 편찬 의미와 진행 상황 및 계획, 남북한 언어의 차이점과 해결 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방영될 예정이다.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3-42 지방재정회관 12층 | 대표전화 02-3275-0815 | 전송 02-3275-3715
Copyright©2010 GYEOREMAL All Rights Reserved.